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52, 3048 <http://www.daegu.jubo.or.kr>



갈릴래아 가나의 혼인잔치 성당 내부

† 오늘의 전례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셨다. (요한 2,1-11 참조)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는 죄 많은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되돌려주고자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하고 말씀하시며, 제대로 청할 줄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아드님께 간구하심으로 은총의 때를 앞당기십니다.

제1독서 이사 62,1-5 **제2독서** 1코린 12,4-11 **복음** 요한 2,1-11

입당송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화답송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영성체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위기의 이웃에게 관심을

이상화 요한 신부 | 충효본당 주임



결혼식에 대한 복음을 들으니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본당에서 혼인미사가 있었는데 그날 사고가 생겨 성당반주자가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신부, 하객들은 이미 다 왔고 미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반주자가 없으니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곡은 수녀님이라도 치면 되는데 처음 신부가 입장할 때 ‘판판판단, 판판판단’하는 그 곡은 도저히 연주할 실력이 안 되셨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한참 넘어 일단 미사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신부입장 순서가 되었는데 당연히 반주는 안 나왔습니다. 반주가 안 나오니 사람들이 금방 웅성웅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사람들에게 ‘오늘 신랑신부는 특별히 하느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주자가 늦게 오게 됐는데 그건 특별히 하느님께서 이 신랑신부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축복을 더 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진정으로 이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진심어린 축복의 마음으로 반주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먼저 ‘판판판단, 판판판단’ 선창을 하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따

라 불렀습니다. 장내는 금방 정리되었고 신랑신부는 그 어떤 반주보다도 훌륭한 하느님의 축복과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 잘못하면 새로운 가정의 시작이 엉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신랑도, 신부도, 잔치의 과방장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가정,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모님과 예수님이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축복과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은 흥겨운 잔치로 꾸며지게 됩니다.

하느님의 일,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일은 타인을 축복해 주는 일이 되어야 하고, 관심을 가지고 남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 배려와 관심 그리고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하느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습도 성모님과 주님의 모습을 닮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필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부름 받은 교우 여러분, 2013년 한해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뜻깊은 시기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여성대통령을 맞이했고, 민생정치라는 새로운 정치쇄신의 변화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 역시 지난해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신앙의 해의 취지를 살려 세속화와 상대주의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영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요청 속에서 맞이한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1월 18일~25일)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신앙의 구심점은 무엇입니까? 미카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6,6-8)입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세속적 가치가 영적 가치들보다 우선시 되고, 종교적 삶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기만족으로 퇴락하는 형태의 ‘우상숭배’가 판을 치는 시대 속에서 미카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에 대한 강력한 호소가 우리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며,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이들과 대화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다른 종교인양 갈라져 분열을 겪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교회 일치’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섰습니다. ‘일치’는 같은 교회를 다니거나 같은 제도 아래서 신앙을 획일화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적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 신앙 공동체들 상호 간에 공통된 신앙 고백과 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누는 삶의 대화,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대면하게 되는 신앙의 걸림돌인 사회악에 맞서고, 공동선을 위해 함께 연대하는 실천적 고백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 일치를 염원하는 한국 개신교계는 올해 전 세계 개신교계를 이끌고 있는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의 제10차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면서 발전된 한국 개신교의 위상을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생명의 하느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란 주제로 참된 교회 일치가 교리적인 논쟁을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함께 고민하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개신교인들과 협력하여 격동의 우리 한국사회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위에서 보여주신 깊은 사랑의 복음정신을 기초로 삼아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새로운 가치질서들을 재발견하길 바랍니다. 분배의 정의와 정치질서의 쇄신,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양심의 회복, 평등한 기회와 권리, 생명과 창조질서의 회복, 혼인과 가정의 사회적 가치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분열이 아닌 일치된 한 마음으로 이루어 내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새 복음화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에게 하느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길 기원합니다.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김 희 중 대주교



저는 믿나다

신경이란?

신경(信經, 라틴어 Credo)은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교회가 바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맨 처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적에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요한 9,38),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마태 16,16), 또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요한 20,28)과 같은 짧고 단순한 신앙고백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사도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부터 주님의 가르침 전체를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담고 있는 신앙고백의 형태가 생겨났습니다.

왜 긴 신경을 바치나요?

지금 쓰이는 신경으로는 사도신경과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있는데, 이 중 사도신경이 더 짧고 보다 오래 된 신경이고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니케아공의회(325년)와 콘스탄티노폴리스공의회(381년)를 통해 보다 정밀하고 풍부하게 표현된 신앙고백문입니다. 『미사경본 총지침』에 보면, 본래 미사 전례 때에는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바치도록 되어 있고 때때로 사도신경도 바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교회가 전례에 채택한 공식 신앙고백문은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신앙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모든 이가 언제나 변함없는 신앙을 더욱 잘 이해하고 미래의 세대에게 전할 필요성을 절실

히 느낄 수 있도록 ... 수도회와 본당 공동체, 그리고 모든 교회 단체는 이 신앙의 해에 공적으로 신앙 고백(Credo)을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자의교서 『믿음의 문』 8항)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로부터 전해 받은 나의 신앙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믿음의 정수를 아름답고도 틀림없이 담고 있는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자주 바쳐서 입과 머리와 마음에 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신경은 일치의 표지이자 감사와 찬미의 기도

오직 하느님의 말씀만이 믿음을 일으키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므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이 그것을 드러내어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신경을 바칠 때는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의 예를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말씀의 전례 중에 바치는 신경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이 믿음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서로 목소리를 합쳐서 “같은 믿음”(티토 1,4)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참 아름답고 뜻 깊은 일입니다. **▶▶▶**

대구주보에서는 신앙의 해를 맞아 신경 해설을 매월 1회 연재합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

영국의 어느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종교학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라는 것이 그 날의 문제였습니다. 강의실 안의 모든 학생들은 저마다의 답안을 열심히 작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감독을 하던 교수는 답안지에는 단 한 글자도 적지 않은 채 창밖의 먼 산만 바라보는 한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그 교수는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왜 답안을 작성하지 않나?” 그 학생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쓸 말이 없습니다.” 교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기 5분 전까지도 그는 미동도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의실엔 그 교수와 학생만 남았습니다. 그 교수는 학생에게 다가가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단 한 줄이라도 쓴다면, 낙제는 없을 걸세.” 그 학생은 이윽고 펜을 들더니 답안지에 답을 적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 답안으로 인해 최우수 학점을 받은 그 학생이 바로 훗날 영국의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시인으로서의 천재성을 그는 그 한 줄에 유감없이 담아내었습니다. 그의 답안에 최고점을 준 교수 역시 존경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는 피조물의 모습과 하느님이시고 또 사람이신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담은 바이런의 명쾌한 답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필문**

금주의 성인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1월 24일, 1567-1622)

이탈리아 출신으로 교회학자들 가운데 한 분이신 살레시오 성인께서는 종교개혁의 혼란기에 사제로 서품되시어 사람들을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제네바 교구의 교구장 주교가 되어 친절하고 온순한 성품으로 교구를 이끌었고, <신심생활의 입문>, <신애론>과 같은 유명한 저서들을 통해 신앙을 가르치시고 성모방문 수도회를 창설하셨다. 리옹의 한 방문수도회에서 선종하신 성인께서는 1665년 알렉산달 7세 교황님에 의해 시성되었고, 언론인과 저술가의 수호자이시다.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월 23일 수요일은 (故)이재희 베네딕토 신부님 2주기입니다.



DVD 발매

가르멜 수녀들의 이야기 <사랑의 침묵>

노팅힐 가르멜 봉쇄수도원을 최초로 카메라에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사랑의 침묵>이 DVD로 출시됐다. 본 영화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인터뷰와 '십자가의 길' 의식, 수녀들의 재치 넘치는 연극 등의 부가영상을 볼 수 있다.

발매일: 1.18(금) / 구입문의: (주)인영트레이딩 02) 319-1150

■ 소중한 한마디를 들려주세요! ■

2013년 1월 대구주보의 디자인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교형자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보를 만들기 위해 대구주보에서는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항목에 대해 소중한 한마디를 적어 보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1. 좋은 점
2. 나쁜 점
3. 주보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4. 기타 건의사항

■ 보내실 곳

700-443 대구시 중구 남산 3동 225-1번지 교구청 별관 403호

문화홍보실 대구주보 담당자 앞 / e-mail : jubo@dgca.or.kr

※ 보내시는 분의 주소와 소속 본당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를 읽고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 대구대교구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1월 21일(월) 오전 10시 경산성당
-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범어성당
- 포항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1월 21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1월 21일(월) 오전 11시 한티순교성지
-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월 22일(화) 오후 2시 계산주교좌좌성당
- 민족화해위원회 월례미사 1월 26일(토) 오전 11시 성모당

성소 | 피정

살레시오회 성소 피정

기간: 2.1(금)~3(일)

장소: 서울 대림동 수도원

대상: 고3~30세 남성 / 3만 원

문의: (010)3894-1332

젊은이 신약성경 통독 피정

기간: 2.15(금) 9:30~20(수) 17:00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

회비: 20만 원

문의: 313-3425 / (010)7103-3425

교육 | 모집

살레시오회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02)828-3600

대상: 만15~23세 남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특징: 교육비 무료, 수당지급, 고검반응

영, 방통고 편입학, 취업알선, 면접전형

꽃동네 평신도 사도직 신앙교육

일시: 매주 토요일 14:00~16:00

강의: 오웅진(사도요한) 신부

내용: 미사와 안수 (성경 지참)

문의: (010)7312-4555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2박3일: 2.25(월) 17:30 ~27(수)

4박5일: 1.22(화) 14:00 ~26(토)

8박9일: 1.28(월) 14:00 ~2.5(화)

에니어그램: 2.16(토) 15:30~17(일)

문의: (031)946-2337~8

경산 어버이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신입생: 구약2년, 신약2년 총4년과정

낮반·목요일, 밤반·금요일

심화반: 4년수로자위한 2년과정(교훈서)

낮반, 밤반·월요일

문의: 815-7888 / (010)6776-2376

감성과 음악으로 만나는 나

일정: 1.26~27(1차) / 3.23~24(2차)

5.4~5(3차) / 7.6~7(4차)

대상: 18세~34세 (미혼 여성)

주최: 예수성심시녀회 교육관

신청: (010)2649-2045

가톨릭교리신학원(통신)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2.8(금)까지

과목: 신·구약, 신학일반(전례학 등)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

경산갑제묘원 무연분묘 처리 공고

처리대상 (관리규정의거 조치)

묘지 사용 후 30년 경과된 묘지

별초비 3년 이상 미납부 묘지

재계약 / 별초비 납부기한: 2월말

문의: 813-0516

로사리오 수녀회 기숙사생 모집

장소: 서울 성북구 성북동 281-6

대상: 여대생

문의: (010)4588-1394 / (02)741-3071

여대생 기숙사 과달루페 집

대상: 여대생 (종교무관)

주소: 대전시 서구 괴정동 114-3

문의: 성체선교콜라수녀회

(042) 534-8876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일시: 1.22(화) 14:00, 신암성당

1.23(수) 10:00, 죽도성당

1.23(수) 14:00, 성토마스성당

문의: (02)3673-2525

서부영남내과

인공신장실 (야간투석)

(공단건강검진,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성당못역 (서부정류장)

3번 출구에서 오른쪽

영남의과대학 외과교수

원장 김영진 (안드레아)

☎ 053)656-7533



달성피부과

의학박사 / 피부과전문의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세지나)

아토피센터·여드름·흉터·주름·탈모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566-4333

관악신임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박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못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snose.com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무릎을 치료하는

12 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훈(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송현역 2번 출구

2007 ISO 9001-2000 품질관리 인증소, 그 명성과 저부심

엄선된 최상급 식재료와 올리브유, 식물성 기름만을 고집합니다.

품격높은 비즈니스 모임, 각종회의 최고의 상견례 장소



대표: 정경숙(스텔라), 황기철(요한)

예약 (053)767-6700 대구 수성구 황금동 LG백화점 옆

신앙의 해

일본 성지순례



나카사키/오키나와

2월 25일 출발

59만 5천원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대표이사 조혜래(유스티노)

환절

백 신경외과 의원

○ 요통, 좌골신경통, 목·허리디스크, 골다공증

○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군·골격질환

○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 진전

원장/전문의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네거리 ☎ 053)628-4111

스마트폰 전문점

두루텔레콤 SKT, KT, LGT

▷ 인기 기종: 삼성 갤럭시(노트2, 갤럭시)

▷ 특관 기종: SKY 베가, LG 옵티머스

(전국 최저가)

공동구내 최저가 판매

053-653-5011 내당역 3번 출구

011-444-1800 장현순(엘리사)

제22회 성 이윤일 요한제

순교기념미사: 1.21(월) 17:00
주례: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문의: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행사 | 모임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1.21(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4회합실
카페: 대구대교구 전례꽃연구회

민족화해위원회 산하 후원회 정기총회

일시: 1.26(토) 성모당 미사 후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대상: 후원회원 누구나
문의: 254-3058

교육 | 모집

YHY 해외봉사활동단 모집

기간: 2.18(월)~26(화)
장소: 필리핀 마닐라
대상: 중·고등학생(선착순 7명)
경비: 약 170만 원 / 마감: 1.31(목)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6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대구308차: 2.22(금)~24(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983-0521
배우자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13회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2차: 2.28(목) 출발 (8, 12주)
3차: 3.24(일) 출발 (8,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 연수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산자연학교 재미있는 녹색 영어캠프

기간: 1.26(토)~29(화) / 35만 원
교수: 가톨릭대 영어영문학과
다니엘, 제이슨
문의: 산자연학교 (054)338-0530
www.sanschool.org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새빛학교 한글·국어반 신입생 모집

대상: 한글에 자신 없는 성인 남녀
접수: 1.14(월)~2.15(금)
문의: 476-3100

2박3일 성령세미나

일반: 1.25(금) 14:00~27(일)
청년: 2.22(금) 13:00~24(일)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 (월막피정의집)
신청비: 일반 12만 원 / 청년 8만 원
신청: (054)954-0951 / (010)4419-1220

김수환추기경과의 인연 공모전

김수환추기경과 함께 했던 추억
함께 한 미담, 감동사연 등 공모

일시: 1.31(목)까지, A4 / 2매
문의: 가톨릭대 김수환추기경연구소
(02)2164-4466

2013 보육교사 양성과정 신입생 모집

2013년도 보육교사자격증 취득
문의: 대구가톨릭대 보육교사교육원
850-3056 / 3366

가톨릭문화관 교육생 모집

통기타, 바이올린, 플룻, 오카리나, 대금, 우쿨렐레, POP, 초크아트, 토폰타
문의: 476-6211

신앙의 해 가두선교 단원 모집

대상: 신심 깊고 신명 나게 선교할 분
신청: (사)한국천주교가두선교단
이판석 신부, 781-6100

채용 | 안내

대봉성당 여사무원 채용(미혼여성)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마감: 1.27(일)까지
문의: 423-1313

2013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제출서류: 본당 신부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사본, 광고문안, 사회복지 관련 사업체인 경우 추가로 교구 사회복지국장 신부님 추천서
문의: 문화홍보실 250-3048, 52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일반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라식, 백내장 수술 전문안과
대구 연세안과
아이라식^{PLUS}, 안내렌즈, 노안수술
의 학 박 사
현, 연세대외래교수 원장 박 중 원(소시모)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 626-8881~5

2484 익스프레스
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함박기(바오로) 011-514-3855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초혼·재혼·만혼
서울 엘리트 회원 다량 보유
이 원 교(요안나) | 20년 경력
(053)471-0707 · 016-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비염·축농증에는 **코비한의원** 대구 수성점
진료 시간
월, 화, 수, 금
am 10:00 ~ pm 07:00
토, 일, 공휴일
am 10:00 ~ pm 05:00 (목요일 휴진)
☎ (053)753-9795 수성구청역 4번 출구 앞

16년 경력, 보증보험가입
"이현숙의 결혼이야기"
국내 2006.04 매일신문 인터뷰 (피플 "세상속으로")
국제 2009-2010 경북 공무원 교육원 다문화강사
054)458-3223 수성나 010-6571-3385
라스투리결혼정보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본관2층

인공신장실
신장 전문 수 내과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 건 현(라파엘)
상인역 ☎ (053)642-7575

본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 | 도 | 석 | 유
전화 한통화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료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현철(베네딕도)